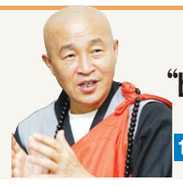
•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제 69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9월 10일(음력 8월 11일) 수요일(주간)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자비심 키워 하나되게"
17 선지식- 도견 스님



"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창조"
15 저자 인터뷰-진관 스님

"삶과 죽음은 같은 길입니다"
9 호스피스 봉사자 이경수

"만해 스님 정신 그대로"
19 '만해 한용운 연구'展 연 고산금

종교차별 끝날때까지…

'…범불교대책위' 전국상설기구로 구성…감시·홍보·연대활동 지속

8 · 27 범불교도대회와 8월 31일 1만여 사찰에서 봉행된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 사찰 동시법회'로 이어진 불자들의 염원이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 구성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 대표자 등 100여명의 불교지도자들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범불교도대회 봉행위원회를 범불교대책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범불교대책위는 조직, 교육, 총무, 대외협력 등의 4개 팀과 종교차별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범불교대책위는 향후 △공직사회 종교편향 활동 감시 △국민통합과 종교평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종교차별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종교평화를 위한 정책활동 △지역별 불교도대회 및 활동 지원 △시민사회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교차별과 관련한 불자들의 실천지침도 마련했다.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철야기도 정진 △사찰, 단체 명의 현수막 게시 △종교차별 사례 및 범불교도대회 사진전 진행 △사찰별 1인 시위 및 언론광고, 사보 홍보 등 활동 전개를 담은 실천지침 1만여개를 사찰에 하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지역별 범불교도대회 일정도 검토했다. 불교지도자들은 1차로 대구 · 경북, 2차로 호남지역에서 범불교도대회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준비를 범불교대책위에 위임했다.

참석자들은 불교계 4대 요구사항인 이명박 대통령 공개사과, 어청수 경찰청장등 책임자 문책,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 시국관련자 대화합 조치 시행 등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평화를 염원하는 불교계의 의지가 날로 강해지자, 청와대와 정부 · 여당은 불교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을 수용하는 최종협상안을 마련하고 불교계와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이나 9월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교계에 직접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사기와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려해, 추석을 전후해 자진사퇴를 종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9월 4일 종교편향 논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의견을 청취했다.

여권의 불교계 요구수용 목소리가 추석(14일)을 앞둔 불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9월 4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계룡산에 이르는 오체투지 순례를 시작한 수경 스님(오른쪽)과 문규현 신부(왼쪽)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특정종교의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 지역 • 계층 •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대표(02)2004-8200

"평화 가득한 세상 염원합니다"

수경 스님 등 지리산에서 묘향산까지 오체투지

"오체투지로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길 염원합니다."

온 국민의 화합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공업(共業)참회에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 등 오체투지순례단(이하 순례단)은 9월 4일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해 계룡산 중악단, 임진각을 거쳐 묘향산 상악단에 이르는 대장정에 올랐다. 계룡산까지의 1차년도 순례는 총 200여Km로 하루 3~5km 진행이 예상되며, 11월 1일 도착 예정이다. 순례단은 이후 2009년 동안 날짜를 정하지 않고 임진각을 거쳐 묘향산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참여는 하루 순례를 기본으로 하며 삼보이후 목례로 진행된다.

오체투지순례단은 "이명박 정부의 폭압정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체투지 순례는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순례"라고 밝혔다.

순례단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진심어린 요구를 정치적 말장난과 폭력적 공권력으로 대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국민 생존권이 달린 공기업은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하고 있다. 국가정상화는 권력 정상화로, 공권력 회복은 국민폭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순례단은 "우리 순례는 절대 냉혈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과의 대립조차 초월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길을 가겠다"고 밝힌 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정진으로 희망을 밝히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종교차별금지법 반대"

한기총 성명, 논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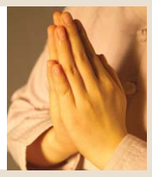
불교계가 제정을 촉구한 '종교차별금지법'에 개신교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엄신형, 이하 한기총)는 9월 5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한기총 엄신형 회장은 8 · 27 범불교도대회 다음날, 청와대 '뉴라이트 만찬'에 불려갔던 인물이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고 포교하는 것은 물론, 타 종교를 비교 ·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이어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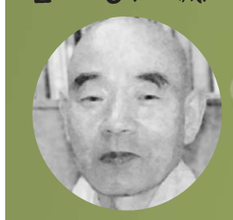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 · 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법왕사 제18회 세계평화남북통일기원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 대법회 회향



종진스님 해인사율주

법왕사에서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18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백분의 큰스님을 모셔다 100일동안 설법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창건 이래 18여년동안 열일곱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열었는데 매번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불교의 핵심인 경율론 삼장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택하여 오는 6월 18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100일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법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뜻깊은 법석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실상 합장

〉〉회향 법문 및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봉행
〉〉9월 30일 오전 11시 / 동참금 : 20,000원
※ 불명 받으실 분은 미리 종무소로 접수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6월 18일(수) ~ 9월 30일(화) 100일간
매일 오전 9시 (108배 3번) 매일 오전 11시 (법문)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 증명 : 조계종 원로의원 원공 정무

※ 동참 신행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76일차_9월 1일 도진스님 (직지사 중암)
77일차_9월 2일 상훈스님 (쌍계사주지)
78일차_9월 3일 진철스님 (만불선원)
79일차_9월 4일 화암스님 (포천/동화사주지)
80일차_9월 5일 일진스님 (운문사학감)
81일차_9월 6일 성해스님 (정혜사주지)
82일차_9월 7일 도영스님 (완주/송광사주지)
83일차_9월 8일 송현스님 (통도사한주)
84일차_9월 9일 혜창스님 (김용사주지)
85일차_9월 10일 여연스님 (일지암주지)
86일차_9월 11일 원오스님 (도림사주지)
87일차_9월 17일 만성스님 (토굴정진)
88일차_9월 18일 용타스님 (계행복마을재단이사장)
89일차_9월 19일 혜인스님 (광덕사회주)
90일차_9월 20일 도성스님 (前 해인사주지)
91일차_9월 21일 금담스님 (극락선원회주)
92일차_9월 22일 대원스님 (각원사)
93일차_9월 23일 일초스님 (前 동학사강주)
94일차_9월 24일 상덕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95일차_9월 25일 효범스님 (부처님마을주지)
96일차_9월 26일 원범스님 (선암사주지)
97일차_9월 27일 지산스님 (관운사주지)
98일차_9월 28일 성타스님 (불국사회주)
100일차_9월 30일 종진스님 (해인사율주)

• 백고좌법회 (CD) 테이프 판매 제18회 백고좌법회 고승대덕 큰스님 법문 테이프와 CD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관계로 백고좌 법회에 동참 못한 가족, 친지 및 이웃에게 법문 테이프, CD를 구매하여 전하는 불법홍포의 좋은 인연을 지으시고 복전의 선근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테이프 : 2천원 CD : 3천원

제18회 백고좌대법회 회향 기념
산사음악회
2008. 9. 29(월) 오후 7시 법왕사 대광장

사 회 이대희(MBC-FM 골든디스크 진행자)
출연진 범능스님,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정무시, 팝페라 손영희(오페라+대중가요) 소프라노 배혜리, 김난영(카페음악)

범능스님 정무시 손영희 김난영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산사의 향기를 따라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불자님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 코스 : 백담사-오세암-봉정암(대청봉)-수렴동계곡
• 일시 : 10월 10일(금) ~10월 12일(일) 2박 3일 밤 12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백고좌법회 원만 회향 기념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 벽송사, 실상사, 금대암을 순례하는 삼사순례법회를 봉행드립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가을 단풍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1일(수) 오전 8시
• 장소 : 법왕사 주차장

※ 차량 및 공양 관계로 미리 종무소로 접수 바랍니다.